

해외전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

2024.04.

OK! OKINAWA

해외건문체득훈련 결과보고

2024년 해외건문체득훈련(일본 오키나와 04.22.~04.26.)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 주요 성과 》

- 일본 오키나와의 레포츠사업 및 체육시설 운영방법 파악
- 시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도시 기반 확대

○ 오키나와의 경제와 문화

- 오키나와현은 아열대, 해양성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환경,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로부터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일본 최대의 해양 리조트지입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어, 국가, 지방, 관세 등의 각종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힘입어 오키나와 전체에 공공시설, 관광시설, 신설도로, 교각, 항만 설비가 갖추어졌다.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대 수도권 지역과 후쿠오카현을 제외하면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남부인 나하와 오키나와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전철이나 지하철이 없는 대신 모노레일은 있지만 단일 노선이며, 오키나와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수단의 대부분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해외전문체득훈련 결과보고

I 주요 활동내용 및 활동사진

【1일차】

- 출국 : 한국 인천공항 →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
- 세나가섬(우미카지테라스)
- 슈리성
 - 오키나와 나하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슈리성은 류큐역사의 상징같은 존재로 450년 역사의 류큐국을 느낄 수 있다.
- 국제거리
 - 관광사업이 발달한 나하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변화한 거리로 관광도시답게 기념품 상점, 음식점들이 밀집되어있다.



【2일차】

○ 미나토마치 '토마리 이유마치' 수산시장

○ 차탄공원 체육시설(차탄조 건강트레이닝센터, 스타디움)

- 야구장, 육상경기장, 소프트볼장, 테니스장, 실내 운동장 등 여러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공식 경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다.(육상 경기장의 경우 출입기록을 작성하면 트랙 이용 가능)

그 외에도 요가, 재즈, 줌바 등 실내 체육을 위한 시설인 체력단련실(GYM)이 있는데 요가는 단계별, 취향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휘트니스 프로그램에는 댄스를 접목시켜(재키사이클과 비슷)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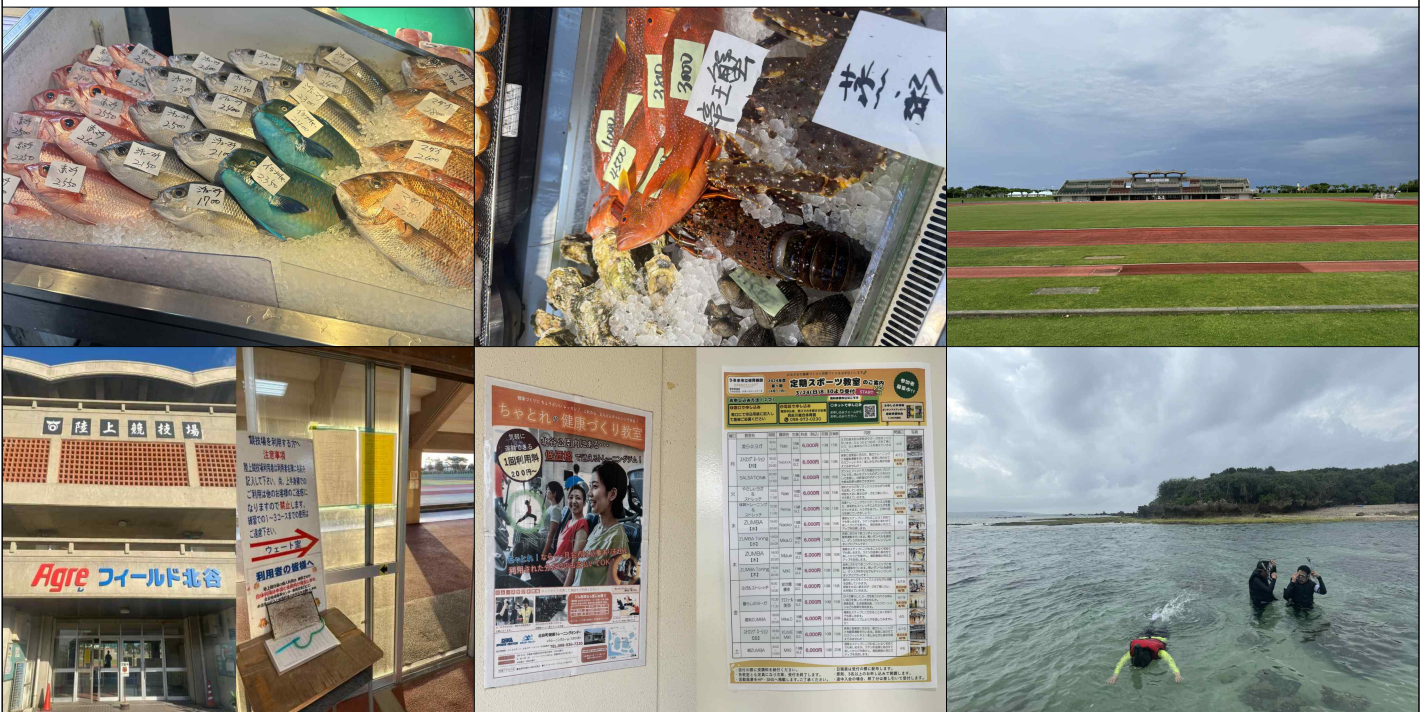
○ 아메리칸 빌리지

-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경험하는 이색적인 공간 운영으로 바로 옆에 바다가 있어 일몰과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 잔파곶, 마에다곶

○ 비세자키

- 수심이 얇고 물이 맑아 다양한 종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 스노클링 최적의 장소로 유명하다.



【3일차】

○ 만좌모

- 오키나와 천연기념물 14호인 곳으로 1726년 류큐국왕이 방문하여 만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만좌모란 이름이 붙여졌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친 파도와 탁트인 바다 전망이 조화가 되는 곳이다.

○ 푸른동굴 스노클링, 다이빙

-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해양 액티비티 명소로 마에다곶에 위치하며, 태양빛이 동굴 속 수면에 반사되어 푸른빛을 띄어 푸른동굴이라고 한다. 바다속에는 화려한 열대어들이 많아 먹이를 주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코우리 대교 '하트바위'

- 일본의 아름다운 명소로 꼽히는 코우리섬의 하트바위는 코우리 대교를 건너 오키나와 북부의 해변인 티누 하마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로 오랜 시간 동안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코우리 섬은 연인에 관한 신화가 있는 곳이라 사랑의 섬으로도 불린다.



【4일차】

○ 헤도곶, 안바루 국립공원

- 헤도곶은 오키나와 최북단의 곶으로 푸른 바다와 절벽이 아름답다.

세계자연유산인 안바루 국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안바루코이나는 오키나와에만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해양공원, 츠라우미 수족관

- 오키나와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오키나와 북쪽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중 하나이다. 전체 길이가 8m 이상인 대형수조에서는 대왕쥐가오리, 상어, 바다거북 등 여러 생물들이 있으며, 오키나오의 수심 200m ~ 700m에 사는 심해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수족관도 있다. 야외에서 돌고래 쇼도 관람할 수 있으며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 치넨 미사키 공원

- 오키나와 남부 동쪽에 위치한 동출된 형태의 곶(미사키)으로 삼면이 태평양 바다로 둘러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 공원이다.



【5일차】

○ 입국

Ⅱ

참여자 의견

박제선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25년차 장기근속자로, 해외건문제득훈련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본의 하와이로 일컫는 오키나와현을 4박5일동안 3명의 동료직원과 흑백의 추억으로 기억될 아름답고 소중한 여행이었다.

도로교통문화에 있어서는 배려와 양보의 완벽한 여유의식 문화 정착이 눈에 띄었으며, 숙소문화에 있어서는 무인화 운영 등 전통과 스마트 기술이 잘 어우러진 친절문화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친절이야말로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겸손한 미덕의 시작임을 새삼 깨닫게 하였다. 그러한 문화의식이 배려와 양보의 시작인 것 또한 알게 되었고, 스포츠센터 수영프로그램 등 운영에 있어 실생활에 응용,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성도 스노클링 체험을 하면서 느꼈다. 무엇보다 4박5일동안 함께한 동료 직원들의 무한한 배려와 솔선수범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송보경

회사 동료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로 출장(여행)을 가게 되어 기대와 우려가 반반인 마음으로 멀지 않은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오게 되었다.

슈리성, 만자모, 아메리칸 빌리지, 츠라우미 수족관을 둘러보며 유명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시설관리나 환경관리가 매우 잘 되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우수했다.

아메리칸 빌리지 인근 차탄공원의 축구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에 비해 접근성의 어려움인지 이용객이 많지는 않아보였고 개설프로그램도 우리 레포츠센터보다 적었다.

바다가 아름다운 오키나와는 해양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었다.

개인적 느낌으로는 오키나와현에서는 시설 외관의 화려함보다는 이용의 편리성과 유지관리를 중시하며 소박한 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병호	해외 견문체득훈련 기회를 주신 회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회사 동료들과 4박 5일간의 좋은 체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종합 스포츠센터 위주의 방문을 하고 왔는데 시설관리와 고객만족도 측면 등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견문체득을 통해 배울점들을 근무하며 다양하게 적용하여 더 나은 고객만족과 안전한 시설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4박5일간 함께해주신 직원 동료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좋은 기억 한 페이지로 간직되어질 것 같습니다.
서지원	해외견문체득훈련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걱정반, 기대반으로 오키나와에 다녀왔다. 일본의 최대 휴양지라 불리는 만큼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이 많았다. 비록 날이 흐려서 비가 오는 날도 있었지만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풍경과 다양한 체험을 하고 왔다. 차탄공원 내 체육시설의 실내스포츠센터에는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센터와 비슷하게 휘트니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특히 요가는 수준별, 수업방식별로 구분되어 있어 인상깊었다. 그 외에도 줌바, 댄스와 접목한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은 종목은 우리 센터와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짜여진 수업프로그램이라 눈에 띄었다. 실외 육상경기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입장가능함)있어 좋았지만 더운 날씨 탓인지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다. 또한 어디든 오래된 시설들이 많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바다인근 공원 시설들은 꽤나 청결했다. 그리고 오키나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츠라우미 수족관은 볼거리가 많아 시간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다. 푸른 동굴 다이빙을 하면서 봤던 어종들을 수족관에서 다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지만 돌고래쇼를 관람하고 나서는 뒤돌아보니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고되게 훈련했을 돌고래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4박5일동안 오키나와 전체를 여행하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양보와 배려였던 것 같다. 도로 위에서도, 식당에서도, 바다에서도 사려깊은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팀원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